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박 세 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신 민 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자기애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두 유형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324명에게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PDS),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자기개념 척도(SCS), 실제-이상적 자기 간 일치도 평정 척도(RISCS), 한국판 Zung 우울 척도(SDS),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NE), 공격성 질문지(AG)를 실시한 후, 자기애 성격장애척도 점수와 내현적 자기애 척도 점수를 이용해 외현적 자기애 집단 33명, 내현적 자기애 집단 54명, 통제 집단 97명을 선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보고하였다. 실제-이상적 자기 간 일치도는 외현, 내현, 통제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괴리 감소 가능성 역시 외현 집단이 내현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괴리 감소 동기는 외현과 내현 모두 통제 집단보다 높고 두 자기애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현 집단이 외현 및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두 유형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현 집단이 외현 집단보다 언어적 공격과 적대감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애 하위유형 구분이 타당함을 시사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할 때 추가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평가, 정서 특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정신장애 진단 체계인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Kernberg(1975)가 기술한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현적이고, 외향화된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임상가들은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애적 병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 왔으며,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Akhtar & Tomp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Wink, 1991). 특히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Kohut, 1971, 1977), 이는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이 구분에 따르면, 두 자기애 집단은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을 공통 핵심특성으로 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외현적 자기애가 웅대성을 밖으로 전시하여 오만하고 과시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 웅대감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해 보이며 모호한 우울감이 시달린다.

Kohut(1977)은 강한 이상화 경향을 보이는 자기애성 성격과 웅대하고 노출적인 자기애성 성격을 구분하여 기저의 역동에 대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자기애가 발달하는데, 이 때 자기대상의 공감의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 자기대상의 공감 실패가 자기애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치감 조절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대상(self-object)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늘 갈망하는 상

태가 되며 이것이 자기애의 핵심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만 외현적 자기애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방식으로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는 '평가예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ooper(2000)는 두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전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역동을 나타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인(affirmation)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구분은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 결과로부터도 도출되었다.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대개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진단준거를 근거로 개발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를 이용하였는데, NPI와 MMPI에서 도출한 자기애 척도가 0에 가까운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e.g., Emmons, 1987; Mullins & Kopelman, 1988; Watson, Grisham, Trotter, & Biderman 1984). Emmons(1984, 1987)는 NPI를 요인분석하여 지도력/권위, 자기몰입/자기감찰, 우월성/꺼만함, 착취성/특권의식의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이

중 착취성/특권의식 요인만이 MMPI에서 도출한 자기애 척도들과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요인들은 상관이 없거나 낮았다. 이에 대해 Emmons (1987)는 NPI가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와 관련되고, MMPI에서 도출한 척도인 NPDS(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Ashby, Lee, & Duke, 1979)는 부적응적인 자기애의 측면을 측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국내 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한수정, 1999).

Wink(1991)는 자기애 측정치들의 불일치가 각각 건강한 자기애와 부적응적인 자기애를 측정하기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Wink는 MMPI에서 도출된 척도 6개를 요인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독립적인 요인구조를 밝혔고, 각각 웅대성-과시성 요인과 과민성-취약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척도들은 상관이 0에 가깝지만, 두 척도들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형제평정과 관찰자 평정에서 자만심이 강하고 거만하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두 종류의 자기애 요인들은 구별되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취약성-민감성 요인만이 방어성, 적대성, 민감성, 자신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었고, 형제평정에서는 내향성, 지도자 역할에 대한 불편감,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확신의 부족 등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웅대성-전시성 요인만이 권력추구, 자기-연극성, 독립성, 넓은 흥미범위 등을 직접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었고, 전시성과 공격성에도 관련됨으로서 두 요인이 서로 다른 자기애의 특성을 나타냈다.

Wink(1991)가 보고한 두 요인은 임상적 관찰에 기반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분류와 부합한다. Rathvon과 Holmstrom(1996)은 MMPI-2에서 도출한 5개의 자기애 척도와 NPI를 요인분석하여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Wink(1991)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Hendin과 Check(1997)은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일부 MMPI척도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10개의 문항을 뽑아 과민성 자기애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를 제작하였다.

자기애의 두 유형 구분이 타당함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두 유형이 지니는 공통적 역동과 차별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Wink와 Donahue(1997)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지루함(boredom)과 관련됨을 보였다. 이들은 이 결과가 내적 야망(실제자기)과 외적 추구 혹은 현재 목표(거짓자기)와의 불일치 혹은 잘못된 연결 때문에 지루함, 불만족, 만족감의 결여 등의 결과가 나온다는 Kohut(1977)의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Rose(2002)는 외현적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 유형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유형의 자기애에서 자존감이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 결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이, 비록 방어적인 자존감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Raskin, Novacek, & Hogan, 1991), 타인을 자신보다 평가절하하는 것도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외현적 자기애가 이러한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Robbins와 Dupont(1992)는 내현적 자기애는 자

신이 적대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적대적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관찰자 평정에서는 적대적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겸양적(self-effacing) 방식으로 행동하고 외현적 자기애가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고양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임상적 관찰과 부합한다.

최근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국내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Akhtar와 Thomson(1982)이 제안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개발하였다.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 구조를 확인했으며, 각각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만 취약성, 자신감 부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을 측정하고 나머지 3요인은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남운(2001)은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Hendin & Check, 1997)를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자신을 매우 외향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내향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보고했고, 두 자기애 모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였다.

이렇듯 최근 들어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자기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자존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내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가 NPI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외현적이고 건강한 자기애만을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격장애 수준의 자기애를 측정하면서도 두 자기애 집단의 공통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해 자기애 집단을 선별한 후 외현과 내현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연구를 위해 건강한 자기애보다는 성격장애에 가까운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외현, 내현 두 하위 유형의 공통 특성을 잘 측정하는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PDS; 황순택, 1995)를 사용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집단을 선별한 후, 국내에서 개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강선희, 정남운, 2002)를 사용하여 두 하위 유형을 구분하고, 두 하위 유형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 두 유형의 자기개념, 자존감,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괴리감소 가능성,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적대감과 공격성을 측정함으로써 자기평가 및 정서 특성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임상적 관찰과 이론(Kohut, 1977) 및 경험적 연구들(Hendin & Check, 1997; Wink, 1991)과 부합하는지 살펴봄으로서 두 유형의 구분이 타당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자존감, 자기개념, 우울,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괴리감소가능성 등의 자기평가 특성이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부정적일 것이다. 둘째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비난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내현적 자기애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로 두 자기애 유형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

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외현적 자기애는 긍정적인 자기제시 편파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치에서 내현적 자기애보다 공격성을 덜 보고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24명(남 152명, 여 17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0세로 범위는 18세에서 32세까지였다.

측정도구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 1995)

황순택(1995)이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 성격장애의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0)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 정남운 2002)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e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가

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기애 유형의 공통요인(이하 CNS23)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이하 CNS145)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이훈진, 원호택, 1995)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자기개념 척도(Self-Concept Scale; 이훈진, 1997)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의 특정 하위 속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훈진(1997)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평정 척도 (이훈진, 1997)

이훈진(1997)이 제작한 것으로,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7개를 적고, 각 단어가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실제/이상간 일치도)와 앞으로 그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괴리감소 동기)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다.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이영호, 송중용, 1991)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합치도 .79-.80이었고, BDI와의 상관(r)은 .70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 이정운, 최정훈, 1997)

Leary(1983)의 척도를 이정운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FNE를 사용하였다. 이정운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한국판: AQ-K; 서수균, 권석만, 2002)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5

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집단선발

자기에 두 하위 유형 및 통제집단의 선별은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PDS)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 중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CNS145)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자기에 성격장애 선별 도구로 NPDS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외현적 자기에 측정치인 NPI는 물론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의 총점, 외현 및 내현 공통요인 점수, 내현적 자기에 고유 요인 점수와 모두 높은 상관을 보여, 각각 $r(324) = .37; .58; .73; .38, p < .001$,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 특성 측정치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 점수가 상위 30% 이상인 참가자 중 전체자료에서 CNS145 점수가 하위 50%이하인 참가자로 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 점수가 상위 30%인 참가자 중 전체자료에서 CNS145 점수가 상위 30%이상인 참가자로 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집단과 내현적 자기에집단을 각각 CNS145의 하위 50%, 상위 30%로 선별한 이유는, NPDS와 CNS145가 모두 부적응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두 척도간 상관이 높아 50%를 공통 기준으로 할 경우 내현적 자기에집단이 과도하게 선별되고,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전형성과 동질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통제집단은 전체자료에서 NPDS 점수가 하위 30% 이하인 참가자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 집단 33명(남 17, 여16), 내현적 자기에 집단 54명(남 27, 여 27), 통제 집단 97명(남 44, 여 53명)이 선별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 성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chi^2(2, N=184) = 0.52, p$

= .772.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은 외현 집단 21.00세(SD=2.17), 내현 집단 20.59세(SD=2.63), 통제 집단 19.86세(SD=1.69)로 집단 간 연령차가 유의미했으나, $F(2, 181) = 4.59, p = .012$, 종속 변인 중 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경우가 없어 이후 분석에서 연령은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세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치 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변량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 $F(2, 181) = 21.86, p < .001$. 또한 외현적 자기애집단의 자기개념은 통제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었으며, 내현적 자기애집단의 자기개념은 부정적이었으며, $F(2, 181) = 37.72, p < .001$. 실제자가 이상적 자기기간 일치도 점수는 외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내현적 자기애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F(2, 181) = 10.66, p < .001$.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기간 괴리감소가능성 점수는 외현적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과 내현적 자기애집단보다 높았다. 반면, 괴리감소 동기 점수는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내현적 자기애집단 모두가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F(2, 181) = 7.31, p < .001$. 우울 점수는

표 1. 외현적 자기애집단, 내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외현적 자기애집단 (n=33)	내현적 자기애집단 (n=54)	통제집단 (n=97)	F	Scheffé 검증결과
자존감	42.3(4.0)	34.9(5.4)	37.8(5.2)	21.86 ^{***}	외현>통제>내현
자기개념	124.8(11.3)	101.6(12.7)	111.5(12.1)	37.72 ^{***}	외현>통제>내현
실제-이상적 자기기간 일치도	30.7(5.5)	24.8(5.5)	27.1(5.5)	10.66 ^{***}	외현>통제>내현
괴리감소가능성	42.5(4.2)	38.1(5.2)	38.1(5.8)	7.96 ^{***}	외현>내현=통제
괴리감소동기	6.2(1.0)	6.0(0.9)	5.7(0.9)	7.31 ^{***}	외현=내현>통제
우울	16.3(7.7)	26.9(6.8)	20.4(6.2)	29.20 ^{***}	내현>통제>외현
부정적평가두려움	38.5(7.7)	44.6(5.5)	36.9(6.0)	27.11 ^{***}	내현>외현=통제
공격성	73.1(10.4)	81.0(10.5)	64.1(10.4)	46.30 ^{***}	내현>외현>통제
신체적 공격	23.7(5.6)	24.4(5.8)	19.5(5.2)	16.99 ^{***}	내현=외현>통제
언어적 공격	13.3(2.0)	14.9(2.9)	12.6(2.1)	15.87 ^{***}	내현>외현>통제
분노감	15.4(2.6)	16.4(3.7)	12.8(2.7)	27.42 ^{***}	내현=외현>통제
적대감	20.7(3.7)	25.4(3.9)	19.3(3.9)	43.96 ^{***}	내현>외현=통제

^{***} $p < .001$

내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 외현적 자기애집단의 순으로 나타났고, $F(2, 181) = 29.20, p < .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통제집단과 외현적 자기애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2, 181) = 27.11, p < .001$.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내현적 자기애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애집단, 통제집단의 순이었는데, $F(2, 181) = 46.30, p < .001$, 공격성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집단은 외현적 자기애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언어적 공격 및 적대감의 수준이 높았다, $F(2, 181) = 15.87, p < .001$; $F(2, 181) = 43.96, p < .001$.(표 1 참조).

요약하면,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가 일치한다고 보고했으며, 괴리가 있더라도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우울하지 않다고 보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는 낮고, 우울감은 높게 보고하여 자기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괴리감소 동기는 두 자기애 집단 모두 통제 집단보다 높았으며, 두 자기애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공격성은 두 자기애 유형 모두에게서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언어적 공격과 적대감은 내현적 자기애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과 달리,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PDS)와 내현적 자

기에 척도(CNS)를 이용하여 적절히 구분하고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임상적 관찰과 부합하는 자기평가 및 정서 특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존감과 자기개념, 실제-이상적 자기간 괴리 등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자기평가는 긍정적이었고 우울 수준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외현적 자기애가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우울, 불안 등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Ervin, & Hodge, 1992)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기저에는 무가치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정신역동적 이론들(Akhtar & Thompson, 1982; Freud, 1914/1953; Kernberg, 1975; Kohut, 1971)을 고려할 때,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애적인 방어(Kernberg, 1975)나,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Akhtar & Thompson, 1982)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다고 보고했는데, 이 결과 역시 선행연구(Wink, 1991)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집단에 비해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가 불일치한다고 보고하면 서도 괴리감소 동기는 통제집단보다 높고, 외현 집단과 차이가 없어서 외현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기 고양 욕구를 나타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열등감, 자기 의심, 비판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임상적 관찰(Akhtar & Thompson, 1982)을 지지해준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현적 자기애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난을 회피하는 방어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두 유형 모두 통제집단보다 전체적인 공격성 점수는 높았는데, 이 결과 역시 임상적 관찰과 부합한다. 하지만 특히 언어적 공격과 적대감을 중심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현적 유형이 자기보고식 측정치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편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겉으로는 타인에게 복종적이고 부정적 반응을 억압하기 때문에 내면적 적대감이 더 크게 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Robbins & Dupont, 1992).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 구분이 임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타당함을 의미하며, Akhtar와 Thompson(1982), Cooper(2000), Kohut(1971, 1977), 그리고 Wink(1991) 등 임상가들이 제안한 하위 유형 구분이 적절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 자기애 성격성향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측정치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임상적 자기애 성격장애 집단이나 일반인 자기애 성향자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18문항의 NPDS가 자기애 성향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성향을 잘 구분해 주는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자기애 성향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정교화해서 구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극단 집단을 구분해 비교했는데, 자기애 성향의 연속선상의 경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하위 유형의 자기고양 전략 및 방어 전략 같은 자기 조절 과정을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한계점이다. 즉, 최근 Morf와 Rhodwald(2001)가 제안한 자기애의 자기조절 과정 모형을 자기애 하위유형 연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적 피드백 추구 정도, 귀인 편향

검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과시를 하는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폄하하는지 등 자기애 집단의 자기조절 과정을 반영하는 측면을 자기애 하위유형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구 논문.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M. B. Ri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pp. 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Freud (1914/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the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1992). Narcissism and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57-370.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s*. Beverley Hills, CA: Sage.
- Morf, C. C., & Rhod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d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10-625.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tson, P. J., Gris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 (1984). Narcissism and empathy: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301-305.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k, P., & Donahue, K. (1997). The relation between two types of narcissism and boredo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36-140.
- Zung,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원고접수일 : 2004. 12. 16
게재결정일 : 2005. 2. 14



Self-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overt • covert narcissists

Se-Ra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in-Sup Shin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narcissistic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subtypes, overt and covert, and investigated the self-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wo subtyp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 the Covert Narcissism Scale(CNS),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the Self-Concept Scale(SCS), the Real-Ideal Self Congruity Scale(RISCS), the Zung Depression Scale(SDS), the Aggression Questionnaire(AQ),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FNE) were administered to 324 college students. And then, thirty-three overt narcissistic students, fifty-four covert narcissistic students, and ninety-seven control group were selected by using the NPDS and CNS scores. The overt narcissists showed more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higher real-ideal self-congruity than the covert narcissists. The covert narcissists showed higher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an the overt narcissists and the normal controls. Finally, the covert narcissists showed more verbal aggression and hostility than the overt narcissists. These results support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wo narcissistic subtypes. These findings are tempered, however, by the use of self-report measures and the use of subclinical samples.

Key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self-evaluations, emotional characteristics.